The Korean Journal of Culinary Research
Vol. 21, No. 1, pp. 250~266 (2015)

서울지역 실버고객들의 외식식습관과 소비행동 속성에 관한 연구

최미숙[1] · 김동호[2] · 박효남[3] · 김성수[4]¶
을지대학교 식품산업외식학과[1] · 혜전대학교 제과제빵학과[2]
세종사이버대학교 조리산업학과[3] · 호남대학교 조리과학과[4]¶

A Study on the Eating Behaviors and Characteristics of Consumption Propensities on Dining out as Perceived by Silver Generation in Seoul

Mi-Sook Choi[1] · Dong-Ho Kim[2] · Hyo-Nam Park[3] · Seong-Su Kim[4]¶
Dept. of Food Technology & Services, Graduate School, Eulji University[1]
Dept. of Baking Technology, Hyejeon College University[2]
Dept. of Culinary Industry, Sejong Cyber University, Seoul[3]
Dept. of Culinary Science, Honam University, Gwang-ju[4]¶

Abstract

This study concentrated on the dining out consumption behaviors, dining out selection attributes, and changes in eating habits of silver generation. Total 216 residents in metropolitan area were employed for statistical analysing.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as the result of *t*-test and ANOVA showed that female and higher academic background tended to regularly take high level of fruits, vegetables, meat, and fish eating habits. These results identified that dining out culture and dietary lifestyle are closely linked. Second, as the result of difference in dining out consumption attitudes on eating habit of silver generation, consumers who have better eating behaviors tended to consider the physical environment, variety of menu, and service quality when they choose a restaurant. Third, as the result of analysis on changes in dining out consumption behavior based on eating behavior of silver consumers, groups differences were found from only the source for information on dining out business and standard variable in selection of dining out business. Fourth, physical environment, variety of menu, business quality, and service were indicated as significant selection attributes of dining out among silver peoples. Fifth, dining out consumption behaviors of silver consumers were developed through newspapers, magazines, and previous visiting experiences. In conclusion, the results of present study showed that silver consumers tend to select a restaurant based on word-of-mouth and various factors related to experiences. Hence, various promotional activities are necessary for the business succession.

Key words: silver generation, diet, dine-out consumption attitude, dining out consumption behavior, dining out selection attribute

Ⅰ. 서 론

국내 고령화 추세는 급속하게 진행되어가고 있

¶ : 김성수, +82-62-940-5419, foodream@daum.net, 광주광역시 광산구 어등대로 417 호남대학교 조리과학과

하나라고 분석되고 있다. 2010년 인구주택총조사 결과,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2010년 545만 명에 비해서 2030년에는 1,269만명, 2060년에 1,762만 명으로 증가할 것이라고 보고되고 있다(Statistics Korea, 2011). 이러한 결과는 국내의 고령화 사회가 다른 선진국에 비하여 그 속도가 아주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베이비붐 세대가 노인층으로 진입하는 2010년에는 실버산업의 시장 규모가 31조원, 2020년에는 약 116조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Lee JH 2012). 이러한 인구변화는 과거 육체적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약자로 인식되었던 노인들이 이제는 다양한 사회활동과 늘어난 평균수명, 경제력, 그리고 교육수준의 향상(Nam SH 2006)으로 사회적으로도 입지 있는 중요한 세대로 바뀌게 되면서 국내 소비활동에도 주요 계층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식품소비에 관한 다양한 연구가 필요하지만, 노인소비자들을 대상으로 한 식습관 태도, 외식선택 및 소비행동에 관한 연구는 아직 미비한 실정이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식습관에 미치는 중요한 요인을 개인의 내적 그리고 외적인 요인으로 구분하였다. 가족특성, 부모의 식습관, 사회·문화적 규범 등은 외적인 요인이라 하였고, 생리적 특성 및 영양 요구량, 체형, 개인의 믿음, 자아개념, 기호, 심리상태, 건강 등은 내적인 요인으로 구별하였다(Van JW 2007). 또한, 음식에 대한 식습관, 선호, 맛, 조리방법 등 다양한 변수들은 소비자들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생활습관, 태도, 성격 등의 라이프 스타일에도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Kim EM 2013; Divine RL & Lepisto L 2005; A. Kkan & D Mahmood 1993; Cho MS, 2009).

오늘날 실버세대는 독립된 하나의 소비층으로 사회의 다양한 분야에 참여하고 있으며, 특히 식품 소비의 패턴변화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계층으로 인식되고 있다. 그러나 국내 소비패턴에 관한 다양한 연구들은 주로 '신세대'라고 불리는 젊은 계층이나 혹은 노인을 포함한 일반 소비자들 대상으로 한 연구가 주류를 이루어 왔다. 게다가 최근 실버세대의 외식 조리 관련 다수 선행연구들의 동향을 살펴보면, 인구통계학적 변수에 따른 소비태도, 행동, 국민소득, 경제여건 및 가족제도 변화, 식생활 라이프 스타일이나 식품 소비패턴 변화에 관한 연구들은 지속적으로 보고되고 있는 반면, 현대사회 외식소비의 주요 소비층으로 인식되고 있는 실버세대를 대상으로 한 식습관이나 소비태도, 그리고 소비행동에 관한 연구는 아직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산업에 새로운 기회로 부상하고 있는 실버세대의 식습관에 따른 외식소비 태도인 외식 선택속성과 소비행동의 변화를 파악하고자 수행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노년기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외식산업에 유용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주요 연구목적이 있다.

Ⅱ. 이론적 배경

1. 실버세대

법적이나 행정적으로 규정된 용어는 아니지만, 실버세대라는 용어는 1990년대 말부터 일본에서 실버를 노인계층을 의미하는 용어로 사용하기 시작한 이후로 국내에서도 이 영향을 받아 사용하고 있다(이인수 2000). 선행연구에 따르면 실버세대는 어떤 일을 수행해 나가는 역할의 관점보다는 사회적 측면, 다시 말해 어떤 일을 수행하는데 있어 다양한 경험을 토대로 일을 융통성 있게 처리할 수 있는 적합한 시기에 있는 사람이라고 구분하였고(Havighurst RJ 1978), 신체적 그리고 생리적 기능의 퇴화와 함께 심리적인 변화도 함께 일어남으로써 개인의 사회적 역할 기능이나 자유의지의 기능이 약화되고 있는 사람이라고 정의하였다(Jang IH, Choi SJ, 1998). 본 연구에서는 연령에 구애를 받지 않고 생리적, 신체적 기능의 저하와 함께 심리적인 변화로 인해 개인의 자유의사 결정력과 사회적 역할의 기능이 약화된 55세 이

상을 실버세대로 구분하고 분석하였다.

현대적 실버세대는 경제적 안정과 다양한 사회참여로 인하여 새로운 것에 대한 두려움이 적으며, 다른 세대들과 구분되지 않은 채로 그들의 문화와 여가생활을 즐기고 있다. 이제는 실버세대들이 다양한 경험과 지식을 토대로 그들의 욕구가 실제 다양한 행동으로 표출되는 경향이 증가하고 있다(Yoo DH 2008). 개인마다 차이는 있을 수 있으나, 노후대책 및 연금 등으로 가족들에게 의지하기보다는 독립적으로 생활하는 경향이 있고, 가계소득의 증가와 더불어 구매력 증대가 이러한 변화를 설명하고 있다(Lee MP, 1994). 과거에 비해 현재의 실버세대의 일반적인 특성에 변화가 일어나고 있으며, 이러한 변화는 세계적으로 고령화시대에 접하고 있는 시점에서 현 실버세대가 새로운 소비계층임을 암시해 주고 있다고 본다.

2. 노인의 식습관

식행동(Food/Eating/Dietary Behaviors)이란 개인의 식생활과 관련된 습관의 총체적인 양상을 나타내며, 식행동은 일반적으로 개인적 요인뿐만 아니라, 사회적, 문화적 요인, 그리고 경제적 요인 등 다양한 요인들로부터 영향을 받게 된다(Seo SJ & Shin HS 2009). 형성된 식습관이나 식행동은 개개인이 선택하는 식품의 폭에 영향을 미치고, 이는 곧 소비행동으로 이어지게 된다. 한편, 실버세대의 식습관 관련 요인을 살펴보면, 실버세대들의 건강상태는 신체적, 사회적, 경제적, 그리고 심리적 요인뿐만 아니라, 식습관이나 식품섭취에 따라 직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다(Kang MJ et al 2011). 이러한 다양한 요인으로 인해 노인들의 식품 섭취량, 기호도, 다양성 및 패턴이 감소하게 되면서 영양부족과 영양불균형과 같은 여러 가지 건강상의 문제들을 초래하게 되었다(Yim KS & Lee TY 2004; Choe EO et al 2002; Woo KJ et al 2003; Yon MY et al 2010). 가족구성원은 실버세대의 식습관 및 식생활을 통해 건강상태 및 영양 상태를 파악하기 위해 유용한 지표로 활용되고 있고, 이와 관련된 연구들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Hong SM & Choi SY 1996; Han KH et al 2004; Shin SK et al 2012). 예를 들어 국내 광주지역 저소득층 노인의 성별에 따른 영양 상태를 조사한 결과, 여자노인의 영양소 섭취상태가 남자노인에 비하여 현저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고(Ro HK & Oh KA 2003), 여자노인에 비해 남자노인이 식품섭취의 다양성 및 영양소 섭취량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Kim IS et al 2001). 또한, 지역적인 환경 차이가 식생활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가 보고되었는데, 도시에 거주하는 노인들은 가공식품이나 인스턴트식품과 같은 다양한 식품들을 섭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농촌에 거주하는 노인들은 도시거주 노인들보다 다양한 식품의 종류를 섭취하지는 않았지만, 규칙적인 식사와 함께 채소 섭취량이 높은 균형 있는 식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Kim YR et al 2012). 소득에 따른 섭취형태를 살펴본 연구에서는 저소득층일 경우, 도시에 거주하는 노인들의 경우 영양소 섭취 및 식품군 섭취빈도가 비교적 양호하게 나타났으나, 농촌지역 노인의 경우 영양소 섭취가 권장량에 많이 부족하고, 칼슘과 열량섭취가 특히 매우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 농촌지역 노인의 영양 문제가 심각함을 알 수 있었다(Lim YS et al 2000).

3. 실버세대의 소비행동

소비행위는 시대나 장소에 구애를 받지 않고 모든 사회에서 발견되는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사회현상 중의 하나이다. 그러나 단순히 모든 사회나 시대에서 발생한 소비행위를 모두 소비문화라고 귀속하지는 않는다. 즉, 인간의 삶속에 구체적인 재화와 용역의 소비행위에서 생겨난 다양한 가치들이 의미 있게 반영되고, 소비행위를 기반으로 한 사회의 다양한 영역들이 형성되는 것뿐만 아니라, 종교, 노동, 정치 등과 같은 부분들은 상대적으로 그 의미가 축소되어 갈 때를 소비문화라고 일컫게 된다(Slater D, 1977).

외식소비자들도 일반 소비상품의 구매자들과 마찬가지로 소비에 있어 기본적인 3단계 과정을 통해 소비행동이 발생한다고 볼 수 있다. 첫째, 구매 전에 발생하는 행동으로 어떤 음식이나 서비스의 필요성에 대한 문제인식 단계와 정보탐색 단계이다. 문제인식 단계에서는 현재의 심리소비상태와 이상적 소비에 대한 차이를 고려하여 현재의 소비가 이상적 소비에 접근하였다면 목적의식이 발생하게 되고, 다음 정보탐색단계로 넘어가게 된다. 정보탐색단계에서는 외식소비자가 접하는 다양한 정보를 기반으로 자신의 구매결정에 의미 있다고 생각되는 정보들을 수집하고, 이를 활용하게 된다. 두 번째 단계는 평가단계이다. 이 단계에서 외식소비자들이 다양한 정보를 토대로 찾는 상품이나 서비스 중 대체 가능한 상품이나 고려된 상품에 우선순위를 결정하게 되는 단계이다. 마지막으로, 소비행동의 마지막 단계는 외식소비 후 나타나는 행동으로 외식소비자가 상품을 구매한 후, 만족이나 혹은 불만족을 느끼게 되는 것이다. 이처럼 외식소비행동을 요약하자면, 외식소비자들의 구매 행동은 외식상품 구매와 관련된 일련의 의사결정단계로 문제를 인식하고, 정보를 탐색한 후 대안을 평가하여 구매를 결정하게 된다. 그리고 구매한 후, 만족이나 불만족에 대한 평가를 하거나, 주변 사람들에게 자신의 의견을 전달하거나, 재방문 혹은 대체 외식상품 구매행동으로 나타나게 된다.

이러한 외식소비행동의 특성은 현대 실버세대의 소비행동에도 유사하게 나타난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노인층은 다음과 같은 구매행동 특징이 나타난다고 한다. 첫째, 노인소비자들의 소비행동은 다른 소비층과 다르게 위험이 있는 요소들을 회피하려 하고 안전과 보장을 받고자 하는 욕구가 강하다. 둘째, 현대 실버세대들은 가계소득의 증가와 의학의 발달로 가족들이나 주변사람들로부터 부양을 받기보다는 독립적으로 생활하는 것을 선호하는 경향이 늘어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소비력이 증가하고 있다. 셋째, 실버소비자들은 소비행동이 다른 소비층에 비해 소극적이고 수동적이며, 넘치는 정보와 판매 상술에 넘어가 잘못된 소비를 하는 경우가 많다. 넷째, 개인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대체적으로 실버소비자들은 소비를 결정함에 있어 혼자서 독단적으로 결정하기보다는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공동의사결정을 선호하게 된다. 이처럼 노인소비층은 일반적인 다른 소비층과 구분되는 특성들이 존재함으로 모든 소비 집단을 하나의 동질적인 패턴을 지닌 단일시장으로 획일화하기 보다는 일반소비자와 구분하여 소비행동을 분석하고, 연구할 필요가 있다.

4. 선택속성 및 소비행동 요인

선택속성은 소비자가 의사결정을 할 때 중요하게 고려하는 속성의 중요도와 선택하고 이용한 후에 지각되는 만족도 정도를 의미한다. 따라서 선행연구에서는 선택속성을 상위속성이라 분류하고, 하위속성을 속성중요도와 속성만족도라고 구분하여 설명하였으며, 선택속성 중 요소를 활용한 선택속성의 분석과 속성만족도를 이용한 선택속성의 분석으로 연구가 양분되어 진행되어 왔다. 선택속성에 대한 중요도는 소비자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이고, 이렇게 중요하게 고려되어지는 속성을 토대로 소비자의 태도를 결정하게 된다. 소비자의 태도는 서비스 질에 대한 연구와 소비자의 만족에 대한 연구 모두에 있어 매우 중요한 개념으로 고려되어 왔다.

선행 연구에서는 소비자의 행동이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개인적 요인들을 제시하였다. 예를 들어 개인의 라이프 스타일이나 개성 그리고 학습이나 태도와 같은 속성들은 외식소비자들이 레스토랑을 선택하거나, 혹은 어떤 상품을 결정하는데 있어 중요한 요인으로 고려되어져 왔다(Seo SH, 1992; Bennett, 1976). 또한, 선행연구에서는 소비자의 행동이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적 요인들도 제시하였는데, 개인의 소비에 영향을 미치는 집단이나 문화, 그리고 가

치관 등을 대표적인 환경적 요인으로 구분하였다.

Ⅲ. 연구방법

1. 조사 대상 및 시기

실버에 대한 연령 기준점은 어느 연령부터 실버라고 지칭해야 하는가에 대해 뚜렷하게 정해진 기준은 없지만 외식소비의 관점에서는 상업적인 차원에서 정년을 전후한 50+마케팅, 55+마케팅을 기준으로 실버 소비자 시장으로 정하였다(Lee EH, 1988). 따라서 본 연구의 대상자는 실버 외식산업의 '새로운 실버 소비자 계층'으로 주 구매자층을 형성할 55세 이상을 실버 외식소비자로 정하여 연구하였다.

자료수집의 표본 대상은 서울지역에 거주하는 자로 55세 이상의 남녀로 한정하여 2014년 7월 15일부터 8월 5일까지 22일 동안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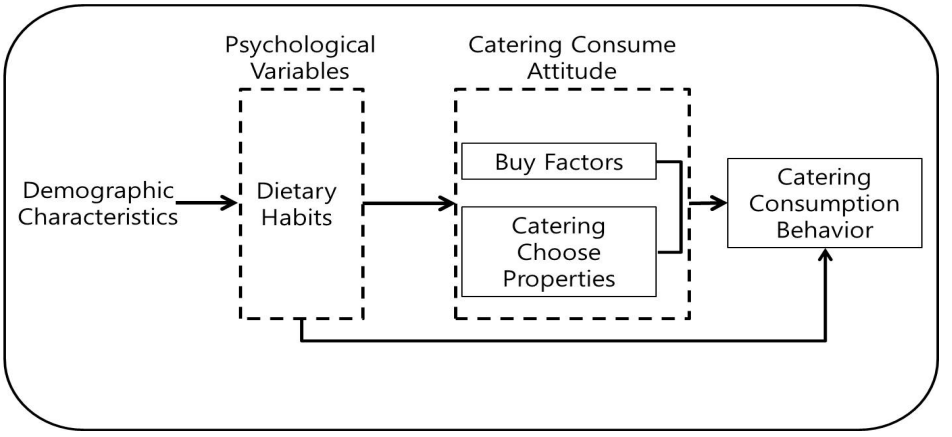
2. 연구 설계

현재 실버세대를 대상으로 진행된 외식분야의 연구는 외식소비에 대해 언급한 부분으로 한정되어 있다. 따라서 본 연구 설계는 이론적 배경을 통해 확인된 식습관과 소비태도, 외식소비 행동에 상호 영향을 주고받는 변수로 설정하였다. 선행연구를 고찰함에 있어 그 유효성이 입증된 변수 간의 관계중심으로 연구를 진행하고자 하였다. 또한, 라이프 스타일, 개인가치, 성격, 소비자 행동은 심리적 변수에 속해 있다(NamKung S, 1995). 본 연구에서는 식습관이나 심리적 변수가 실버세대의 소비특성에 구체적으로 외식소비태도나 소비 행동에 어떤 관련성을 가지고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하여 규명하고자 하였다. 식습관에 따른 외식문화의 변화요인은 내적 환경이나 외적 환경에 의해서 오랫동안 사회구성원들에게 공유되는 근원적인 태도로 개인이나 사회구성원들이 어떻게 행동하고 느껴야 하는가를 나타낸다. 즉, 실버세대들이 어떻게 외식을 선택하며, 그리고 무엇이 적절한 외식소비 행동을 구성하는가라는 측면에서 설명되고 있다. 이러한 식습관은 자신을 인식하고 평가하기 위하여 여러 신념으로 구성된 신념체계를 가지고 있으며, 태도와 행동에 관련하여 식습관이나 태도를 경유하여 특정한 행동으로 상호관계가 존재하게 된다(NamKung S, 1995). 따라서 실버세대의 식습관은 가치와 태도의 표현을 통해 행동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외식소비를 결정짓는 요인들을 외식소비태도로 명명하고, 외식소비태도는 각각 구매영향요인과 외식선택속성으로 정의하였다(Lee JH 2012).

본 연구에서 실버세대의 소비행동연구에 있어서 유의한 기준으로 작용할 변수는 심리적 변수, 즉 식습관을 전제로 연구를 진행하고자 하였다. 즉, 실버세대로 한정된 연구의 특징을 살려, 식습관에 따른 외식소비태도, 소비행동까지의 관계를 실증적으로 검증하기 위하여 <Fig. 1>과 같이 연구의 개념모형을 설정하였다. 연구의 개념적 아이템은 크게 심리적 변수, 즉 식습관과 외식소비태도, 외식소비행동으로 구분되었다. 심리적 변수들이 외식소비태도에, 심리적 변수가 외식구매 선택이나 행동에 관련성을 가지고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설정하였다. 또한, 연구의 대상인 실버세대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규명하고, 심리적 변수의 하위구조를 통해 집단을 구분하여 소비행동 특성을 파악하였다.

3. 자료수집 방법 및 설문지 구성

본 연구에서는 고령인 표본 집단의 특성을 고려하여 예비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예비조사를 통해 개발된 설문지 측정변수의 확인과 문항의 응답 용이성, 그리고 척도의 문제점 및 측정시간 등을 파악하였다. 예비설문을 통해 응답자의 이해가 난해한 문항이나 잘못된 문항에 대해서는 수정 및 보완을 함으로써 본 설문조사를 위해 설문문항의 타당도와 신뢰도기 높아졌음을 확인하였다. 설문응답을 스스로 기입하도록 하는 자기기입방



〈Fig. 1〉 **Diagram of study flow.**

식으로 하였으나, 일부 응답자가 설문지를 읽는데 불편함을 느끼거나 어려움이 있을 경우 조사자가 일대일(1:1)로 설문지를 읽어주고, 응답한 내용을 기입하여 주는 인터뷰 방법을 함께 병행하였다. 예비조사 결과와 선행연구들을 기반으로 설문내용의 중복 여부나 타당성, 그리고 응답의 용이성 등을 평가하였고, 수정 및 보완한 후 총 51개의 문항을 본 연구의 설문문항으로 채택하였다. 총 350부를 배포하였으며, 수집된 설문지와 자료선택과정(Data Cleaning)을 통하여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134부를 제외한 총 216부(62%)의 설문지를 분석에 활용하였다.

설문지는 크게 식습관과 외식소비선택속성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식습관은 선행연구인 Yoon HR (2005). Sohn IN & Kim YS (2008), Yu JY & Ro HK (2009)의 연구를 바탕으로 식사의 규칙성, 영양균형, 결식 여부, 식사속도, 영양지식 실천 정도 등에 관한 내용을 추출하였다. 또한, 이와 관련된 내용을 자료검색 결과, Kim JH (2013), Kim EM (2013)의 연구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 맞게 14문항으로 재구성하였으며, 측정척도는 Likert의 3점 척도법(1점-아니오, 2점-가끔, 3점-예)을 이용하였다. 또한, 식습관에 따른 집단간 차이를 분석하기 위하여, 각 문항의 점수를 합산하여 총점 42점을 만점으로 식습관 점수를 계산하였고, 식습관 점수에 따라 양호(35~42점), 보통(25~34점), 불량(0~24점)으로 구분하였다. 본 연구의 식습관 문항의 신뢰도(.75)는 분석에 이상이 없음을 알 수 있었다. 설문항목 개발은 Choi SI et al (2014), Kim SJ & Cho MH (2014), Seol SC et al (2014), Kim EH et al (2014), Lee YJ & Hwang YJ (2014)의 외식과 관련된 연구에서 이론적 배경을 바탕으로 측정문항 방향성을 참조하였고, 이를 통해 외식선택 속성과 구매영향 요인은 전정원(Jeon JW, 2008)의 연구를 참고하여 본 연구에 맞게 재구성하여 사용하였다. 이 연구는 신뢰도(0.89)와 표본의 적합도 (KMO 0.86~0.87)는 높았으며, 전체 분산의 설명력도 양호함을 보여주었다.

4. 자료의 분석방법

서울지역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지 350부 중 불완전한 응답을 제외한 216부(62%)를 SPSS Package Program(Ver. 20.0)을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 구체적인 분석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설문대상자의 일반적인 사항을 파악하기 위하여 성별, 연령, 최종학력, 용돈의 정도를 빈도분석을 실시하였다. 둘째, 외식 소비행동의 선택속성의 타당도와 신뢰도를 검증하기 위해 항목별 물리적 환경, 다양성, 품질, Cronbach's α 계수를 산출하였다. 셋째, 실버세대의 식습관 수준을 알아보기 위해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하여. 이를 바탕으로 인구사회학적 특성 따른 인식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독립표본 t 검증과 F 검증을 실시하였다. 집단 간의 다중비교를 위한 사후검증으로는 Scheffé 검증($p<.05$)을 실시하였다. 넷째, 설문대상자의 일반적인 사항에 따른 식습관의 경향을 산출하여, 설문대상자들의 식습관을 파악하였다. 마지막으로, 설문대상자의 식습관에 따라서 소비자의 외식소비행동을 알아보기 위한 빈도와 백분율을 산출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하여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인식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Chi-square (χ^2) 검증을 실시하였으며, 실버세대의 식습관에 따른 외식소비행동 차이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Ⅳ. 결과 및 고찰

1. 인구통계학적 특성

조사대상자의 일반적인 사항을 파악하기 위하여 빈도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Table 1〉과 같다. 성별 구성에 있어서 전체응답자 216명중 여성이 151명(69.9%)으로 남성보다 많았으며, 연령별로는 55~59세가 전체 응답자의 114명(52.88%)으로 가장 많았으며, 60~69세가 66명(30.62%)으로 그 다음 순으로 많았다. 최종학력은 중졸이 78명(36.1%)으로 가장 많았으며, 한 달 소비용돈은 40만원 이상이 63명(29.2%)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는 20만원 미만이 61명(28.2%)으로 나타났다.

2. 외식 소비행동 선택속성에 대한 타당도와 신뢰도

외식 소비행동 선택속성에 대한 도구의 타당도와 신뢰도를 검증한 결과는 〈Table 2〉에 나타난 바와 같다. 외식 소비행동 선택속성 도구의 구성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해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요인추출방식은 주성분 분석(Principal Component Analysis)을 사용하였으며, 요인회전방법은 직각회전방식의 Varimax 방식을 채택하였다. 요인추출법의 주요 목적은 요인을 결정하는 것인데, 기준은 요인적 재량이 0.5 이상이며, 고유치(eigenvalue)가 1 이상인 것으로 요인을 추출하였다. 그 결과 물리적 환경요인, 다양성 요인, 품

〈Table 1〉 Demographic characteristics

Demographic characteristics		Number(Persons)	Ratio(%)
Gender	Men	65	30.1
	Woman	151	69.9
Age	55~59	114	52.8
	60~69	66	30.6
	70 over	36	16.7
Education level	Middle school less	78	36.1
	High school graduate	74	34.3
	Professional college graduates	64	29.6
Monthly allowance	₩ 200,000	61	28.2
	₩ 200,000~₩ 300,000	52	24.1
	₩ 300,000~₩ 400,000	40	18.5
	₩ 400,000 over	63	29.2
Total		216	100.0

<Table 2> Validity and reliability of selected properties tool

Questions	Average	Sd	Physical environment	Diversity	Quality	Cronbachs alpha
Parking space	3.27	1.20	.809	.087	.152	
Cleanliness of the restaurant	3.92	1.17	.757	.060	.345	
Types of dishes	3.11	0.91	.755	.233	.216	
Amenities for the elderly consumers	3.24	1.02	.713	.197	.036	.91
Image of the restaurant	3.47	0.95	.706	.129	.388	
Atmosphere of the restaurant	3.49	0.95	.703	.135	.447	
Capacity of the restaurant	3.19	0.87	.695	.277	.339	
Visible events	2.97	0.93	.141	.822	.150	
Decoration and designing of food	2.99	0.93	.333	.810	.062	
Special menu	3.03	0.89	.035	.796	.261	.88
Additional providing and dessert	2.99	0.93	.111	.708	.225	
Proper menu changing time	3.06	0.93	.213	.676	.314	
Diversity of menu selection	3.30	0.96	.380	.769	.229	
Types of foods	3.60	0.88	.374	.204	.734	
Service attitude	3.57	1.01	.132	.268	.704	
Food quality	3.26	0.92	.085	.226	.650	.89
Food appearance	3.26	0.92	.291	.179	.607	
Freshness of ingredients	3.94	1.04	.169	.154	.524	
Eigenvalue			8.85	2.27	1.06	-
Variance(%)			49.17	12.60	5.90	-
Total cumulative(%)			49.17	61.76	67.66	-

질 요인 등, 총 3개의 요인이 추출되었으며, 설명력이 높은 18개 문항으로 측정하였다. 변수간의 상관관계가 다른 변수에 설명되는 정도를 확인해 보기 위하여 KMO 값과 요인분석 모형 적합성 여부를 나타내는 Bartlett의 검정을 실시한 결과, 모두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나타냄으로써 요인분석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5>에서 보여준 바와 같이, 요인분석을 통해 검증된 외식선택속성 하위요인에 대한 신뢰도(α)를 산출한 결과, 물리적 환경은 0.91, 다양성 요인은 0.88, 품질 요인은 0.89로 나타나, 신뢰성이 모두 0.7 이상으로 요인의 신뢰성이 확보되었다. 구체적인 결과로서, 요인 1은 7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물리적 환경요인으로 명명하였고, 49.17%의 설명력을 나타내고 있었으며, 요인 2는 6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어 다양성 요인으로 명명하였고, 12.60%의 설명력을 나타내고 있었다. 요인 3은 5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어 품질 요인으로 명명하였고, 설명력은 5.90%로 나타내고 있었으므로, 이 세 가지 요인으로 인하여 외식선택속성은 약 67.66%

의 설명력이 있다고 볼 수 있다.

3. 실버세대의 식습관에 따른 외식 소비행동 선택 속성과 구매영향 요인 차이

요인분석의 결과에 따른 외식선택 속성에 대하여 식습관 점수로 구분한 집단 간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F* 검증을 실시한 결과는 〈Table 3〉과 같다.

외식선택속성 중 물리적 환경 요인에서 식습관이 양호한 집단(*M*=4.10), 보통(*M*=3.31), 불량(*M*=3.16)인 집단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p*<.001). 또한, 다양성 요인에서는 식습관이 양호한 집단(*M*=3.44), 보통(*M*=3.11), 불량(*M*=3.06)인 집단 순으로 높게 나타났으며(*p*<.05), 품질 요인에서는 식습관이 양호한 집단(*M*=4.01), 보통(*M*=3.57), 불량(*M*=3.45)인 집단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p*<.001). 집단 간 다중비교를 위한 사후검증으로 Scheffé 검증한 결과, 세 가지 요인 모두에서 식습관이 양호한 집단과 불량한 집단 사이에서, 양호한 집단과 보통인 집단 사이에서 유의한 평균 차이가 나타났다(*p*<.05).

4. 실버세대의 식습관 실태 분석

실버세대의 식습관을 알아보기 위해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한 결과, 55~ 59세는 평균 2.02점, 60세~69세는 평균 2.04점, 그리고 70세 이상에서는 평균 1.98점으로 나타났다. 식습관 하위문항별로 분석해 보면, “식빵류를 자주 먹지 않는다”는 문항이 모든 집단에서 가장 높은 값으로 나타났으며, 55세~59세 사이 집단에서는 “생선을 자주 먹는다”에서 가장 낮은 값으로, 60세~69세 집단과 70세 이상 집단에서는 “우유나 유제품을 자주 먹는다”는 문항이 가장 낮은 값으로 나타났다.

집단 간 차이에서는 “생선을 자주 먹는다”는 문항만이 유의적인 차이가 나타났으며, 70세 이상의 집단이 55세~59세 사이의 집단에 비하여 오히려 생선을 자주 먹는 것으로 나타났다(*p*<0.05).

실버세대의 성별에 따른 식습관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독립표본 *t* 검증을 실시한 결과, 여자(*M*=2.06)가 남자(*M*=1.93)보다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p*<.001). 식습관 하위문항별로 차이를 분석해 보면, 식사 시간이 규칙적이다(*p*<.001), 하루 세끼 식사를 모두 먹는다(*p*<.05), 과일을 자주 먹는다(*p*<.01), 야채류는 자주 먹는다(*p*<.05), 육고기류를 자주 먹지 않는다(*p*<.001) 문항에서 여자가 남자보다 높게 나타났음을 알 수 있다 (Table 4).

〈Table 3〉 Dining out optional attribute differences in eating habits

Sub-factors	Eating habits	*N*	*M*	*Sd*	*F*	Scheffé
Physical environment	1. Bad group	44	3.16	.84	29.328***	3>1,2
	2. Middle group	128	3.31	.65		
	3. Fair group	44	4.10	.33		
Diversity	1. Bad group	44	3.06	.76	4.634*	3>1,2
	2. Middle group	128	3.11	.65		
	3. Fair group	44	3.44	.68		
Quality	1. Bad group	44	3.45	.98	8.042***	3>1,2
	2. Middle group	128	3.57	.67		
	3. Fair group	44	4.01	.49		

*p<.05, ***p<.001.

<Table 4> Gender differences in eating habits

Eating habits	Man(n=54)		Women(n=123)		*T*
	M	*Sd*	*M*	*Sd*	
Always have a meal in regular	1.78	.63	2.16	.64	−3.673***
Eat regularly meals three times a day	1.98	.59	2.20	.68	−2.165*
Eat mainly grain	2.09	.65	2.30	.68	−1.922
Eat green and yellow vegetables every day	2.02	.76	1.92	.70	.843
Eat fruits often	1.69	.57	2.02	.67	−3.127**
Eat vegetables often	1.91	.62	2.13	.66	−2.091*
Eat meat often	2.11	.57	2.47	.60	−3.793***
Eat fish often	1.61	.65	1.54	.63	.637
Eat seaweeds often	1.61	.62	1.61	.60	.014
Eat dairy products often	1.67	.64	1.51	.59	1.556
Eat snacks often	2.54	.57	2.46	.63	.634
Eat eggs and bean products often	1.57	.60	1.66	.61	−.850
Eat miscellaneous grain often	1.94	.76	2.11	.77	−1.351
Eat bread often	2.54	.66	2.72	.52	−1.751
Total	1.93	.25	2.06	.29	−2.737**

*p<.05, **p<.01, ***p<.001.

실버세대의 연령에 따른 식습관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일원변량분석(F 검증)을 실시한 결과, 60~69세(M=2.04), 55~59세(M=2.02), 70세 이상(M=1.98) 순으로 높게 인식하였지만, 집단 간의 유의한 평균 차이(F=.498, p>.05)는 나타나지 않았다. 식습관 하위문항별로 차이를 분석한 결과, '생선을 자주 먹는다'는 문항에서 70세 이상(M=1.78), 60~69세(M=1.61), 55~59세(M= 1.43)의 집단 간 차례로 결과가 나타났으며, *Scheffé* 검증한 결과에서는 70세 이상 집단과 55~59세 집단 사이에서 유의한 평균 차이가 나타났다(p<.05).

실버세대의 최종 학력에 따른 식습관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F 검증을 실시한 결과, 고졸(M=2.05), 전문대졸 이상(M=2.04), 중졸 이하(M=1.98) 순으로 높게 인식하였지만, 집단 간의 유의한 평균 차이(F=1.063, p>.05)는 높게 나타나지 않았다. 식습관의 하위문항별로 차이를 분석한 결과, '과일을 자주 먹는다'는 문항에서는 전문대졸 이상, 고졸, 중졸 이하 순으로 높게 인식하고 있었으며, 집단 간의 다중비교를 위한 사후검증으로 Scheffé 검증을 한 결과, 전문대졸 이상과 중졸 이하 사이에서 유의한 평균 차이가 나타났다(p<.05). '육고기류를 자주 먹지 않는다' 문항에서는 전문대졸 이상, 고졸, 중졸 이하 순으로 높게 인식하였고, 전문대졸 이상과 중졸 이하 사이에서 유의한 평균 차이가 나타났다(p<.05). 그리고 '생선을 자주 먹는다'는 문항에서는 중졸 이하, 고졸, 전문대졸 이상 순으로 높게 인식하였는데, 학력이 높을수록 단백질 식품인 생선섭취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었으며, 따라서 중졸 이하 집단과 전문대졸 이상 집단 사이에서 유의한

평균 차이가 나타났다(p<.05).

실버세대의 한 달 용돈에 따른 식습관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F 검증을 실시한 결과, 30만원 미만(M=2.06), 40만원 이상(M=2.03), 20만원 미만(M=2.00), 40만원 미만(M=1.97) 순으로 나타났지만, 집단 간의 유의성은 나타나지 않았다. 즉, 매달 사용하는 실버세대에게 가용할 용돈의 액수의 많고 적음이 그들의 식습관에 영향력을 주지 않은 수치는 최근 사회현상을 반영한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고 분석된다. 식습관의 하위문항별로 차이를 분석해 보면, '해조류를 자주 먹는다'는 문항에서 30만원 미만(M=1.73), 40만원 미만(M=1.70), 40만원 이상(M=1.62), 20만원 미만(M=1.43) 순으로 높게 인식하였고, 30만원 미만과 20만원 미만 사이에서 유의한 평균 차이가 나타났다(p<.05). '달걀·콩 제품을 자주 먹는다'는 문항에서는 40만원 미만(M=1.83), 40만원 이상(M=1.67), 30만원 미만(M=1.65), 20만원 미만(M=1.48) 순으로 높게 인식하였고(p<.05), 40만원 미만과 20만원 미만 사이에서 집단 간 유의한 평균 차이가 나타났다(p<.05). 그리고 '식빵류를 자주 먹지 않는다'는 문항에서 는 30만원 미만(M=2.79), 40만원 이상(M=2.77), 20만원 미만(M=2.70), 40만원 미만(M=2.23)의 순으로 높게 인식하였으며(p<.001), 20만원 미만과 40만원 미만, 30만원 미만과 40만원 미만, 40만원 이상과 40만원 미만 집단 간에서 유의한 평균 차이가 나타났다(p<.05).

실버세대의 식습관에 따른 구매영향요인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F 검증을 실시한 결과, 구매요인에서 식습관이 양호한 집단(M=3.55), 보통(M=3.20), 불량(M=2.98)인 집단 순으로 높게 인식하였고(p<.001), 식습관이 양호한 집단과 불량한 집단, 양호한 집단과 보통인 집단 사이에서 유의한 평균 차이가 나타났다(p<.05). 즉, 식습관이 양호한 집단일수록 구매력에 대한 영향력이 더 높았음을 알 수 있었으며, 식습관이 양호한 집단이 소비영향력에 대한 인식이 더 높다고 해석할 수 있다.

5. 실버세대의 식습관에 따른 외식소비행동 차이

식습관 수준에 따른 외식업체 방문 횟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χ^2 검증한 결과, 월 2~3회로 외식하는 집단이 가장 많았으며(38.4%), 그 다음으로는 월1회(19.4%), 거의 가지 않는다(17.1%), 월 4~5회(17.1%), 월6회 이상(7.9%) 순으로 외식업체를 경험하는 순서로 나타났으며, 식습관 수준에 따른 집단 간의 유의적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식습관 수준에 따라 선호하는 외식업체 업종별 메뉴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χ^2 검증을 한 결과, 외식을 하는 경우에 주로 어떤 업종의 메뉴를 선호하는가에 대하여 실버세대는 한식(81.9%)업종 메뉴를 가장 많이 선택하는 결과를 보여주었으며, 다음으로는 퓨전식 레스토랑(5.6%), 중국식(4.6%), 일본식(4.2%), 서양식(3.7%) 순으로 선호하였으며, 식습관 수준에 따른 집단 간에 유의적인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식습관 수준에 따라 이용하는 외식업체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χ^2 검증한 결과, 외식을 할 때 '주로 어떤 종류의 외식업체를 이용하는가'에 대하여 실버 세대는 일반 대중음식점(76.9%), 패밀리 레스토랑(9.3%), 일식당(8.8%), 고급 전문점(2.8%), 기타(2.3%) 순으로 이용하였지만, 식습관 수준에 따른 유의적인 차이는 크게 나타나지 않았다.

식습관 수준에 따른 외식업체를 선정하는 주관자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χ^2 검증을 한 결과, 외식을 할 경우 외식업체 선정은 주로 누가 하는가에 대한 설문에 대하여 실버 세대는 본인(37.5%), 자녀 및 손자(23.1%), 배우자(19.0%), 친구 및 직장 동료(18.1%), 기타(2.3%) 순으로 결과가 나타났지만, 식습관 수준에 따른 유의적인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식습관 수준에 따른 외식업체에 대한 정보수집 출처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χ^2 검증을 한 결과, 식습관이 불량인 집단은 외식업체에 대한 정보 출처가 주로 친구(25%), 신문 및 전단지(45.4

%) 등을 통하여 얻고 있었으며, 식습관이 보통인 집단은 정보의 출처로서 친구 및 직장동료를 통하여 가장 많은 정보를 구하고 있었다(50.8%). 그리고 과거의 방문 경험을 통해서는 19.5%, 전단지와 광고 등을 통한 정보력은 22.7%로 나타났다. 식습관이 양호한 집단에서도 역시 외식업체의 정보 출처로서 친구와 직장 동료로부터 가장 많은 정보를 구하고 있었으며(75%), 신문 및 잡지 등의 공고 및 기사를 통해서는 11.4%, 과거 방문 경험을 통해서는 6.8% 차례로 정보를 얻고 있었다. 전체적으로 p<.001 수준에서 집단 간에 유의적인 차이(χ^2=50.37)가 나타났는데, 식습관의 수준 차이에도 불구하고 모든 집단에서 외식업체에 대한 정보출처로서, 친구와 동료로부터 얻는 영향력이 매우 큰 것 또한, 최근 현사회의 경향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식습관의 수준에 따른 외식업체 선택에 대한 선정 기준의 차이점을 알아보기 위하여 χ^2 검증을 한 결과(Table 5), 식습관이 불량인 집단은 선택기준으로서 음식의 맛과 메뉴, 편리한 주차시설, 합리적인 가격 순으로 분석 결과가 나타났으며, 식습관이 보통인 집단은 음식의 맛과 메뉴, 합리적인 가격, 음식점의 서비스와 분위기 순으로 중요성이 차례로 나타났다. 그리고 식습관이 양호한 집단에서는 음식의 맛과 메뉴, 합리적인 가격, 편리한 주차시설과 음식점의 서비스와 분위기 순으로 중요도가 높게 나타났으며, p<.01 의 수준에서 집단 간에 유의적인 차이(χ^2=27.73)가 나타났다.

한편, 설문조사를 통하여 실버세대의 식습관 변화에 대한 외적인 요인의 우선순위를 분석한 결과, 부모의 식습관(M=4.60), 가족특성(M=4.70), 외식소비트랜드(M=4.86), 사회적 요인(M=5.12), 우상적 인물(M=5.28), 교육적 요인(M=5.56), 문화적 요인(M=5.57), 생활양식(M=6.23), 경제적 요인(M=6.56), 도시와 농촌 지역 간 차이(M=6.69) 순으로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었으며, 내적인 요인의 우선순위를 분석한 결과, 개인의 믿음(M=4.50), 영양요구량(M=4.64), 이상적인 체험(M=4.67), 성격(M=5.22), 가치관(M=5.25), 생리적 요인(M=5.28), 기호(M=5.40), 건강 상태(M=5.68), 심리적 요인(M=6.75), 평균 수명 연장(M=7.63)의 순으로 인식하였다.

Ⅴ. 요약 및 결론

오늘날 실버세대는 독립된 소비세대로 사회 여러 분야에서 실버외식산업을 급성장시키는 세대이기도 하다. 본 연구에서는 새로운 소비의 주체세력으로 부상하고 있는 실버세대를 대상으로 실버세대에 대한 외식 소비행동에 따른 외식 선택속성과 식습관 변화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서울에 거주하는 55세 이상의 실버 연령인 216명을 대상으로 하여 식습관 수준과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변인분석은 독립표본 t-검증과 F-검증을 실

<Table 5> Choice criteria for the restaurants in silver generation Unit : Persons(%)

Eating habits \ Choice criteria	Taste and menu	Proper price	Parking place	Atmosphere	Reputation	Sanitation & facilities	Sum	χ^2
Bad group	15(34.1)	9(20.5)	11(25.0)	7(15.9)	2(4.5)	0(0.0)	44(100.0)	
Middle group	60(46.9)	35(27.3)	9(7.0)	17(13.3)	4(3.1)	3(2.3)	128(100.0)	23.73**
Fair group	31(70.5)	5(11.4)	3(6.8)	3(6.8)	1(2.3)	1(2.3)	44(100.0)	
Sum	106(49.1)	49(22.7)	23(10.6)	27(12.5)	7(3.2)	4(1.9)	216(100.0)	

**p<.01.

시하였으며, 실버세대의 식습관에 따른 소비태도와 외식소비행동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는 χ^2 검증을 실시하였다. 분석한 연구 결과를 요약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첫째, 실버세대의 식습관 수준은 3점 만점에 평균 2.02점으로 나타나, 식습관이 어느 정도 양호함을 알 수 있었다. 인구사회학적 특성별 차이는 성별에 따라 집단 간의 차이가 나타났으며, 여성이 남성보다 식습관이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고, 특히 규칙적인 식습관은 남성에게서 더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과일, 야채, 육류 등도 남성이 여성보다 섭취가 더 높게 나타났다. 연령에 따른 집단 간 차이는 연령이 낮을수록 식습관이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연령이 높을수록 인스턴트나 식빵류의 섭취가 더 높았다. 특히 '생선을 자주 먹는다'는 문항에서는 연령이 높을수록 많이 섭취하며, 50~70세 집단 간에 평균적 차이가 나타났다. 최종 학력에 따른 집단 간 차이는 없었으며, 일반적으로 학력이 높을수록 식습관 태도가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고, 과일, 야채류, 생선, 식빵류의 섭취가 높았다. 특히 식사의 규칙성, 과일, 야채, 육류, 생선의 섭취에서 학력 간의 차이가 나타났으며, 야채보다 육류를 더 섭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달 용돈(20~40만 원 이상)에 따라서는 식습관에 차이가 없었고, 전체적으로 식빵류를 많이 섭취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집단 간 차이는 40만원 미만 집단에서 각각 나타났다. 선행 연구자 Han JH(2012)를 보면 남성에게서 식습관이 (3.53) 여성보다(3.39) 양호한 것으로 나타난 반면, 연령과 학력이 높을수록 식습관이 양호한 것으로 나타난 결과가 본 연구 결과와 일치한다. 또한, Ahn SJ & Kang SA (1999)에 의하면 연령이 낮을수록 규칙적인 식사를 하는 것으로 연구되었으며, 고소득자일수록 남성보다 여성이 채소류를 더 많이 섭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결과를 볼 때, 식습관에 대한 일반적인 경향은 논의할 수 있으나, 이를 일반화하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다고 볼 수 있다. 다만 1인 가족과 독거노인의 증가, 그리고 먹거리에 대한 불안 요인에 의하여 건강식품이나 웰빙식품을 섭취하려는 식생활 패턴은 외식소비문화와 식생활 라이프스타일과 맥을 같이 한다고 할 수 있다.

둘째, 실버세대의 식습관에 따른 외식소비태도 차이를 분석한 결과, 식습관 태도가 비교적 양호한 사람들이 불량한 집단보다 물리적인 환경, 메뉴의 다양성, 업체의 품질과 서비스를 찾아서 외식업체를 선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업체의 음식메뉴에 대한 품질이 가장 높은 외식선택 속성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생활수준이 향상됨에 따라 메뉴 선택의 고려사항은 음식의 맛이며, 음식의 양은 생활수준과 밀접한 관계를 가진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생활수준이 향상됨에 따라 양보다 질을 더 우선시 하는 경향과 일치하며(NamKung S 1995), 또한, 식습관, 수용, 영향요소는 개인적인 특성, 생물·생리적 요인, 음식 본질적 요인, 문화 및 종교적인 요인, 물리적 환경요인, 사회경제적 요인들에 의해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Kim KY, Kim SJ, 2000)와도 일치한다. 특히 물리적 환경 요인에서 식습관이 양호한 집단, 보통인 집단, 불량인 집단 순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p<.001$ 수준에서 집단 간의 유의적인 차이가 나타났다.

또한, 실버세대의 식습관에 따른 구매영향요인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식습관이 양호한 집단이 그렇지 못한 집단보다 구전, 홍보, 경험 요인을 통해 구매하는 경향이 높았으며, 특히 식습관이 양호한 집단은 경험을 통하여 구매하는 경향이 높았다. 용돈이나 학력이 높은 집단이 그렇지 못한 집단보다 식습관이 양호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맥락에서 나정기는 성별과 나이, 교육수준 등의 인구통계학적 요소가 음식에 대한 습관과 선호도, 그리고 수용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였다(Na JK, 2009). 또한, 음식을 선호하는 것도 성별, 연령, 성격, 체질, 건강상태, 경제적 수준, 섭취경험에 의해 영향을 받게 된다(Kim WJ et al 2001) 즉, 음식의 종류나 먹는 방식에 대한 선호

도는 개인의 성격이나 사회적 경제성과 관련되고, 사회적 지위 및 개인의 내면적 성격을 반영하기도 한다(Lee EY 2008)는 연구와 일치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식습관이 양호한 집단이 그렇지 못한 집단보다 건강식품이나 웰빙 식품을 섭취한다는 점은 현 사회의 외식소비 패턴과도 일치하며, 이는 식생활 라이프 스타일 및 외식소비 트렌드가 식습관 및 소비행동에도 크게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실버세대를 위한 음식 메뉴 개발, 품질, 물리적 환경 개발의 중요성을 시사하고 있는 점이다.

셋째, 실버세대의 식습관에 따른 외식소비행동 변화를 분석한 결과, 식습관 수준에 따른 외식업체 정보 출처와 외식업체 선택 선정기준 변수에 대해서만 집단 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식업체 정보 출처 순위는 친구와 가족, 직장동료, 과거의 방문 경험, 전단지, 방송, 신문 및 잡지 기사를 통한 순으로 분석결과가 나타났으며, 또한, 식습관에 따른 소비행동은 하위 영역에서 차이가 나타났다. 즉, 식습관이 양호한 집단이 '신문 및 잡지, 과거 방문 경험'을 토대로 외식소비행동을 하는 반면, 식습관이 보통과 불량인 집단에서는 '전단지, 신문기사'를 통해 외식소비행동을 주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는 실제로 제품이나 혹은 서비스를 구매하기 위해 특정점포를 방문하기도 하며, 구매와는 별도로 친구들과의 미팅 등 다른 목적을 위해 특정점포를 방문하기도 한다(Edward M. Tauber 1972). 이처럼 소비자들의 이용 목적을 잘 파악하고, 이용고객이 점포를 선택하고, 점포 내에서 어떠한 의사결정을 하는지를 분석하고 평가하는 것은 마케팅 전략의 기본이 되는 것이고, 이용고객을 이해하는데 필수적인 과정인 것이다. 외식업체 선택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순위는 음식의 맛과 메뉴, 합리적인 가격, 음식점의 서비스와 분위기, 편리한 주차시설, 업체의 지명도나 평판 순으로 인식하였다. 전정원의 연구에서도 외식업체 선택 시 품질요인을 중요시 여기는 것으로 나타났다(Jeon JW 2008). 식습관에 따른 소비행동은 모든 집단에서 음식의 '맛과 메뉴'를 최우선적으로 생각하고 있었으나, 식습관이 양호한 집단과 보통인 집단에서는 '가격이나 분위기'인 반면에, 불량인 집단에서는 '주차시설이나 가격'을 높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p<.001$ 수준에서 집단 간에 유의적인 차이가 나타났다. 실버세대의 식습관 변화 요인을 분석한 결과, 부모의 식습관, 가족 특성, 우상적 인물, 내적요인으로는 생리적, 영양적, 이상적 체험 순으로 식습관 변화의 모습을 보였다.

한글 초록

오늘날 실버세대는 독립된 소비세대로 사회 여러 분야에서 실버외식산업을 급성장시키는 세대이기도 하다. 본 연구에서는 새로운 소비의 주체세력으로 부상하고 있는 실버세대를 대상으로 실버세대에 대한 외식 소비행동에 따른 외식 선택속성과 식습관 변화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서울에 거주하는 55세 이상의 실버 연령인 216명을 대상으로 하여 식습관 수준과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변인분석은 독립표본 *t*-검증과 *F*-검증을 실시하였으며, 실버세대의 식습관에 따른 소비태도와 외식소비행동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는 χ^2 검증을 실시하였다. 분석한 연구 결과를 요약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첫째, 실버세대의 식습관 수준은 3점 만점에 평균 2.02점으로 나타나, 식습관이 어느 정도 양호함을 알 수 있었다. 둘째, 실버세대의 식습관에 따른 외식소비태도 차이를 분석한 결과, 식습관 태도가 비교적 양호한 사람들이 불량한 집단보다 물리적인 환경, 메뉴의 다양성, 업체의 품질과 서비스를 찾아서 외식업체를 선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실버세대의 식습관에 따른 외식소비행동 변화를 분석한 결과, 식습관 수준에 따른 외식업체 정보 출처와 외식업체 선택 선정기준 변수에 대해서만 집단 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참고문헌

Ahn SJ, Kang SA (1999). A study on the food habits and dietary behaviors among the Korean elderly. *Korean J Soc Food Sci* 15(1):81-94.

Bennett, PD, Rassarjian HⅡ (1976). Consumer Behavior. Prentice Hall of India.

Cho MS (2009). Foodservice Culture. Daewangsa, Seoul.

Choe EO, Woo KJ, Chyun JH (2002). Food preferences of the elderly living in Incheon area. *Korean J Dietary Culture* 17(1):78-89.

Choi SI, Yim ES, Kim CY (2014). The influence of healthy lifestyle toward wine selection attributes. *The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14(1):478-487.

Divine RL, Lepisto L (2005). Analysis of the health lifestyle consumer. *Journal of Consumer Marketing* 22(5):275-283.

Han KH, Choi MS, Park JS (2004). Psycho-social, nutritional status and meal service utility patterns by living arrangements of the elderly participated in meal service. *Korean Journal of Community Nutrition* 9(5):615-628.

Han JH (2012). Elderly people's diet pattern, Degree Thesis JoongAng University, Seoul.

Havighurst RJ (1978). The Sociolofical Meaning of Aging, Jack Boytwitick, Aging and Behavior, N. Y: Springer Publishing Company, 7-8.

Hong SM, Choi SY (1996). A study on meal management and nutrient intake of the elderly. *J Korean Soc Food Sci Nutr* 25(6):1055-1061.

Jang IH, Choi SJ (1998). Social welfare for older person. Seoul National University, Seoul.

Jeon JW (2008). Research on the behavior of dinging:out consumption of a new silver generation. Doctoral dissertation, Kyonggi University, Suwon.

Kang MJ, Joung HJ, Lim JH, Lee YS, Song YJ (2011). Secular trend in dietary patterns in a korean adult population, using the 1998, 2001, and 2005 Korean National Health and Nutrition Examination survey. *The Korean Journal of Nutrition* 44(2):152-161.

Kim EH, Kim JH, Hong WS (2014). The influence of importance factors affecting ethnic food restaurant selection upon overall satisfaction. *The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Food & Cookery Science* 30(3):360-367.

Kim EM (2013). An analysis of factors affecting food consumption patterns of the elderly: based on the Korean National Health and Nutrition Examination Survey(KNHANES V-1). MS thesis, Keimyung University, Daegu.

Kim IS, Yu HH, Kim YS (2001). A study on nutrient intake, food behavior and health conditions according to food intake diversity in the elderly in a local city. *Korean Journal of Community Nutrition* 6(2):205-217.

Kim JH (2013). A study on the stress and food habit of adults in Ulsan. Doctoral dissertation, Ulsan University, Ulsan.

Kim KY, Kim SJ (2000). A study on the choosing behaviora 1 factor of restaurant menus in hotels. *Korean Journal of Culinary Research* 6(3): 25-55.

Kim SJ, Cho MH (2014). How customer attributes and menu selection criteria are related to customer support for menu labeling. *Korean J food culture* 29(3):231-239.

Kim WJ, Beck SJ, Park SY, Park JS, Oh MJ (2001). A study on eating behaviors and food preferences of university students. *Res Institute Human Ecology* 4(1):117-125.

Kim YR, Seo SH, Kwon OR, Cho MS (2012). Comparisons of dietary behavior, food intake,

and satisfaction with food-related life between the elderly living in urban and rural areas. *Korean J Nutr* 45(3):252-263.

Kkan A, Mahmood D (1993). Michael Olsen, and Turgut Var(eds). VNRS of Hospital and Tourism, New York: Var.

Lee EH (1988). The study on marketing strategic and prospect of mature consumers. *Marketing Communication Review* 4:106-122.

Lee EY (2008). Effect of emotions on the food preference and restaurant selection of female university students. Master thesis, Ewha Womans University, Seoul.

Lee IP (1994). The study on consumption behavior of silver consumers. Doctoral dissertation, Dongkuk University, Seoul.

Lee IS (2000). 21st Silver Business and Life. Yanggi, Bucheon.

Lee JH (2012). Consumer Behavior and Marketing Management. Parkyoungsa, Seoul.

Lee YJ, Hwang YJ (2014). Potential effects of restaurant selection preferences by elderly consumers' values and lifestyle. *The Korean Journal of Culinary Research* 20(1):220-237.

Lim YS, Cho KJ, Nam JH, Lee KH, Park HR (2000). A comparative study of nutrient intakes and factors to influence on nutrient intake between lowincome elderly living in urban and rural areas. *J Korean Soc Food Sci Nutr* 29 (2):257-267.

Na JK (2009). Understanding Menu Management. Baksan, Seoul.

Nam SH (2006). A study on effects of lifestyle of silver households on cost of dining-out. Master thesis, Chung-Ang University, Seoul.

NamKung S (1995). A study on the eating out behavior of residents in the Seoul area. *Journal of the East Asian Society of Dietary Life* 5(1): 75-86.

National Statistical Office (2011). Population projections for Korea (2010~2060). Retrieved by kostat.go.kr/smart/news/file_dn.jsp?aSeq=252623&ord=13

Ro HK, Oh KA (2003). Gender and age differences in the nutritional status of the low income elderly living in Gwangju. *Korean Journal of Community Nutrition* 8(3):302-310.

Seo SH (1992). Consumer Behavior. Parkyoungsa, Seoul.

Seo SJ, Shin HS (2009). A study on eating behavior, developmental outcomes of young children, and nutritional attitude and knowledge levels of mothers. *J East Asian Soc Dietary Life* 19(6):839-845.

Seol SC, Park WJ, Woo SK (2014). A study on The analysis of differences made by characteristics, selection attributes and consumption behavior based on types of consumers of health functional foods. *Journal of Tourism and Leisure Research* 26(1):463-482.

Shin SK, Kim HJ, Choi BY, Lee SS (2012). A comparison of food frequency for the elderly regarding different family types - Based on Community Health Survey for 2008 -. *Korean J Nutr* 45(3):264-273.

Slater D (1977). Consumer Culture and Modernity. Oxfords. UK ; Polity press.

Sohn IN, Kim YS (2008). Research on the dining-out behavior of Cheong-Ju Undergraduates by food-related lifestyle. *The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8(11):347-355.

Statistics Korea(2011). Future Population Trend (2010~2060). 1.

Tauber EM (1972). “Why do People Shop?”, *Journal of Marketing* 36:46-59.

Van JW (2007). Food attitude and food behavior

of female consumers according to their life-style. Master thesis, Kyounggi university, Suwon.

Woo KJ, Chyun JH, Choe EO, Rho JO (2003). A Comparison study of the daily food intake and its related factors of the elderly living in Incheon. *J East Asian Soc Dietary Life* 13(5): 379-390.

Yim KS, Lee TY (2004). Sociodemographic factors associated with nutrients intake of elderly in Korea. *The Korean Journal of Nutrition* 37 (3):210-222.

Yon MY, Lee MS, Oh SI, Park SC, Kwak CS (2010). Assessment of food consumption, dietary diversity and dietary pattern during the summer in middle aged adults and older adults living in Gugoksoondam Logevity Area, Korea, *Korean Journal of Community Nutrition* 15 (4):536-549.

Yoo DH (2008). A study of research for the Korea culture theme park.

Yoon HR (2005). The study of dinning-out behavior and preference on Korean foods by age groups, *The Korean Society of Dietary Culture* 20(5):608-614.

Yu JY, Ro HK (2009). Gender differences in obesity rates, nutrient intakes, and dietary behaviors among college students. *J East Asian Soc Dietary Life* 19(6):846-855.

2015년 01월 10일 접수
2015년 02월 05일 1차 논문수정
2015년 02월 10일 2차 논문수정
2015년 02월 15일 3차 논문수정
2015년 02월 15일 논문게재확정